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67> 수행자로서 사람 몸을 잃는 것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에게 물으셨다. “깊은 바다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눈먼 거북이가 있다. 눈먼 거북이는 백 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마셔야만 했다. 이 바다에는 구멍 뚫린 나무판자 하나 떠다니는데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밀 때 그 나무판자 구멍 속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있겠느냐?” 이에 아난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하였고, 부처님께서 “이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바로 중생이 잠깐이나마 사람 몸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는 이야기다. 부처님 말씀에 세상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일이다. <선가귀감> 67장에서 말한다.

故古語亦有之曰 三途苦 未是苦 袈裟下失人身 始是苦也.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지옥 아귀 축생계에서 받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니, 수행자로서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이다”라고 하였다.

삼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계를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나쁜 업 때문에 과보를 받기 위하여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지옥에서는 언제나 뜨거운 쇠물이 펄펄 끓고 시련의 숲들이 활활 타오르며 날카로운 칼들이 숲과 산을 이루고 있

다고 한다. 인간세계 육십 겁(劫)이 지옥의 하루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벌을 받는 지옥 중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살아생전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고 늘 성내는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다. <지장경>에서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기를 “갑날 같은 이빨과 벼갯벌 같은 눈을 가진 많은 아차와 악귀들이 구리로 된 손톱으로 죄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차는 커다란 삼자창

### 늘 성내는 마음 품고 살면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 수행자가 시물 탐내는 것은 삼악도 죄악 보다 커

날 사이로 죄인의 몸이나 입과 코를 사정없이 찢어 대기도 합니다. 등과 배를 창끝에 꿰어 공중 높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젓다가 뜨거운 평상 위에 내려 놓기도 합니다. 또 쇠로 된 송골매는 죄인들의 눈을 쫓아 먹기도 합니다. 쇠로 된 뱀은 죄인들의 목을 칭칭 감아 조이기도 합니다. 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빠집없이 박기도 합니다. 혀를 가느다랗게 쭉 뽑아서서 발을 가는 것처럼 그 위에서 쟁기질을 하고 장자를 후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합니다. 구리를 녹여 그 구리물을 입안에 사정없이 붓기도 하고 뜨거운 쇠줄로 몸을 꼭 조여 묶고 만 번 죽였다 만 번 살아나게 하기도 합니다. 지은 업의 과보는 이러한데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아귀 세상은 귀신들이 사는 곳이다. 아차나 나찰 귀신들도 이곳에 살지만 아귀들의 숫자가 제일 많으므로 아귀도(餓鬼道)라고 부른다. 아귀라고 불리는 까닭은 속이 비어 늘 굶주리고 두려움과 겁이 많기 때문이다. 이 귀신들은 여위고 수척하여 추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굶주린 아귀들은 그들의 과보가 끝나 다른 몸을 받기 전까지는 음식 보아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깊은 바다 속이나 음침한 숲 속에 살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할 세월이 언제 다할지 모른다고 한다. 이들은 살아생전에 탐욕과 질투심이 많아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이나 법을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아귀도에 떨어지게 굶주린 채로 칼질이나 몽둥이질 등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축생이란 이름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집에서 길러 양육시킨다는 뜻에서 얻어진 것이니,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새

들 주로 가리킨다. 짐승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해치고 힘센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입가에 핏덩이를 물고 으르렁거린다. 또한 사람들이 짐승들을 기를 때 채찍으로 때리기도 가장 큰 괴로움이다 하며 잡아먹기도 하니 온갖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축생이 된 까닭은 살아생전에 도둑질을 하기,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온갖 수단으로 남의 공부를 방해하기 등 나쁜 행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경전을 여는 첫머리에 나오는 개경계(開經偈)에서는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고 하여,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은 백천만겁이 되어도 만나

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가사’를 걸친 수행자로서, 인과를 믿지 않고 신도의 시물만 탐내어 짓게 되는 온갖 죄악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삼악도의 죄악보다도 더 크고 무겁다고 한다.

故人云 今生未明心 滴水也難消 此所以袈裟下失人身也 佛子佛子 慎之激之.

옛 어른께서 이르기를 “금색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 시주 은혜를 갖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가사 입은 수행자로서 사람의 몸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되어, 분발하고 분발할지이다.

<영소무벽기(英都武壁記)에 이르기를 “깨달음을 얻고 후학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데에 대장부의 뜻을 돌리지, 한 부로 사욕을 부려 한 몸의 영달을 피하다가 만겁의 재앙을 만들지 말라. 삼악도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니 가사 아래서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또 동산양개(洞山良价) 스님이 어떤 학인에게 “이 세상에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가사를 입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라고 하였다.

아운 스님도 <자경문(自警文)에서 “가사를 입은 수행자로서 금색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 시주 은혜를 갖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니, 법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저녁으로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송사 인월암)

■일림 : 지난호(625호) 본 연재의 제목은 ‘<68> 수행자는 한 덩어리 숫돌과 같아’입니다.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9>



#### 상담의 종류

심리 상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삶의 양상이 복잡해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우선 상담 형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의 대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상담, 상담자 및 각 집단 구성원의 역동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상담, 비슷한 연배나 비슷한 성장 수준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련된 상담 전문가로부터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해 지도를 받는 슈퍼비전, 상담 수련생이나 상담가가 자기 자신에

부처님의 교화 활동에서도 오늘날의 상담의 종류와 비슷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과 질문자가 1대1로 문답을 주고받는 개별 교설은 오늘날의 개인 상담과 유사하며, 부처님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제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대중 문답은 집단 상담과 흡사하다. 하지만 개별 교설에는 아난다 존자가 배석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단 둘이서만 진행되는 현대 상담과는 차이가 나며, 대중이 금급한 사항을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부처님이 답하는 대중문답은 집단 구성원 간의 심리적 역동을 중요시하

### ‘개별 교설’ ‘대중문답’은 개인상담·집단상담 유사 편안한 임종 위해 법문하는 모습 호스피스의 면모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내담자가 되어 숙련된 상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교육 분석 등이다.

상담 매개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면담 상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화상담,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상담 등이 있다.

내담자에 따라 상담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노인·성인·대학생·청소년·영유아·부부·가족 상담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서 하는 거리 상담, 독거노인 등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거나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 상담, 임종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활동 등이 있다.

는 오늘날의 집단 상담과 구별이 된다.

이밖에 부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수행 방법이나 진리에 대해 논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은 현대의 동료상담과 흡사하며,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반 신도나 외도를 대상으로 설법을 한 뒤 옮겨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부처님께 점검 받는 모습에서 오늘날의 슈퍼비전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이 거리에서 직접 외도나 신도를 만나 교화를 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거리 상담에 견줄 수 있으며, 병으로 죽어가는 제자를 직접 찾아가 법문을 해주었으며 편하게 임종을 맞게 해주신 모습에서는 오늘날의 호스피스 활동과 비슷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만발공양(萬鉢供養)

서울 조계사는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는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왜 이름을 ‘만발’이라고 지었을까?

만발(萬鉢)은 만 개의 발우를 뜻하는 말로 불가에서 이루어지는 만발공양(萬鉢供養)을 뜻한다. 만발공양은 절에서 발우에 밥을 담아 대중에게 베푸는 공양. 부처님 생전 발우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온다.

초기불교에서는 출가자는 신도들에게 밥을 설하며 밥을 보시하고 재가자는 수행자를 위해 옷 음식 약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보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도가 출·재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면서 사찰과 스님도 재보시의 주제로 등장한다.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사찰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구휼자의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다.

교리적 근거는 부파불교에서부터 생겨났다. 승단에 들어온 시냇물을 비구나 비구니가 모두 소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팔기나 대어할 수 있도록 설일체유부 등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유는 불사나 공공복지에 사용했다.

부파불교에서 생겨난 공양물 보시에 대한 공덕의 식은 이후 대승불교에서 보시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열반경>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공덕을 가진 것으로 굶주리는 자를 먹이는 공덕을 첫 번째로 인정할 만큼 만발공양은 사찰이 불자들에게 베푸는 대표적인 재보시이다.

강지연 기자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석탑·석등·동물상·인물상·목불조각·수미단·조형물조각·육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나 양해 바라옵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서명	저자명	보급수량	가격
望月佛敎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절판	350,000
佛光大辭典(全8권)	臺灣佛光寺	절판	200,000
佛書解說大辭典(全14권)	小野玄妙	1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山	2	100,000
慧遠研究(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2	580,000
韓國近世佛敎百年史(全2권)		29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염승(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절판	200,000